

九曲圖의 發生과

機能에 대하여

— 한국 實景山水畫發展의 一例 —

俞 俊 英(全南大)

目 次

- I、序言
- II、性理學의 東傳과 九曲圖
 - 一、朱子의 武夷精舍經營과 武夷權歌
 - 二、退溪以前武夷九曲圖의 流行
- III、퇴계와 栗谷의 精舍經營과 九曲圖
 - 一、퇴계의 陶山書堂과 武夷九曲圖
 - 二、栗谷의 隱屏精舍와 高山九曲歌
- IV、宋時烈과 金壽增의 精舍、九曲經營
 - 一、송시열과 九曲圖
 - 二、金壽增과 谷雲九曲
- V、九曲圖의 造形上 몇가지 문제
- VI、結論

一、序言

美術의 한 장르가 발생하기까지는 사회적, 문화적 계기가 따른다. 고령말에 들어온 性理學은 朱熹(一一三〇—一一〇〇)의 학설과 함께 그의 특이한 자연관과 精舍生活을 통하여 창작된 武夷權歌와 武夷九曲圖①를 우리나라에 전해준다. 이것은 특히 퇴계와 율곡 이후 性理學者 사이에 九曲詩와 九曲圖를 유행시킨다. 그중에서도 高山九曲圖는 武夷九曲圖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연의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描寫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의 實景山水畫 발전의 한 예를 보여 준다. 九曲圖類는 퇴계 이후 여러 性理學者들에게 있어서는 朱子學 파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이었으나, 조선조 중기 이후에 와서는 이론상의 분열과 함께 이를 정치적이 데오로기로 삼는 門人들을 結束시키며 學統系譜②를 宣揚하는 기능까지 맡는다. 그중에서도 老論을 중심으로 九曲圖가 더 자주 제작된 듯 하고, 이들은 실제로 관직에서 물러나 閑居하거나 제자들을 모아 講論하면서 주자의 武夷에서의 생활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九曲을 經營하고 九曲圖를 그리게 한다. 퇴계와 율곡은 九曲經營과 九曲歌製作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송시열과 金壽增은 율곡의 高山石潭九曲經營에 자극받아 스스로 精舍를 짓고, 구곡을 경영한다. 특히 김수증은 그의 형제들의(金壽興、金壽恒) 정치적 출세와 함께 관직에 진출하나 士禍로 타격을 받고 老年에는 아주 깊이 산속에 隱居하여 보다 더 性理學的 自然관에 빠지는데, 畫家 曹世傑을 시켜 그린 谷雲九曲圖에서는 실제 景觀을 造形化한 동기와 과정이 전해지고, 또 이것이 후손들에 의해 模寫保存되어 繪畫史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송시열은 一七세기 노론의 중추적 인물로 九曲圖製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 주며, 따라서 이와 같은 회화의 특수한 기능이 주목된다. 이런것을 집약적으로 나타낸것이 前玄道源所藏 高山九曲圖인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몇몇 文人畫家들이 나타나며, 圖畫署畫員들의 一九세기 畫壇에서의

역할도 참고가 된다. 이 논고에서는 가끔, 精舍, 書堂, 書院, 石潭九曲 高山九曲, 등의 용어가 混用되는 것을 참작하기 바란다. 끝으로 性理學에 대한 일반적 이해, 자료수집, 原文註釋 등에 협조하여 주신 昌文女子高等學校 金彰顯교장, 東亞日報文化部 여러분, 成均館大學校 琴章泰교수, 그리고 현장답사에 도움을 준 국립박물관의 同學 李泰浩씨에게 감사드린다.

II、性理學의 東傳과 九曲圖

一、朱子(一一三〇—一二〇〇)의 武夷精舍經營과 武夷權歌

당시 성리학자들의 朱子의 行跡과 九曲圖에 대한 관심은 一次的資料로 밝히기 위하여 퇴계의 <跋金景嚴致所求七君子贊及箴銘朱文公棲息講道處帖>③을 소개한다.

『朱先生은 처음에 建寧府崇安縣 五夫里 屏山 아래, 潭溪 위에 살았는데 이른바 <憶在潭溪四十年好峯無數列窓>이란 이를 말한다. 乾道六年庚寅(一一七〇) 선생은 四세에 晦庵을 建陽坊 蘆峯 아래에 있는 雲谷 안에 짓고 崇安西南 八十餘里에서 왕래하면서 棲息하시었다. 淳熙六年(一一七九年) 五〇세에 南康軍知事로 부임하여 白鹿洞書院④을 다시 이루었다. 선생이 知事로 있으면서 三년만에 임기가 차므로 돌아와 다시는 白鹿洞書院에 갈 수 없었으니 南康은 江東에 속하여 閩방에서 멀기 때 문이다. —충략— 선생 五四세에 또 武夷精舍를 지었다. 韓元吉⑤의 精舍記에 <元晦(朱子) 선생은 五夫里에 거하니 武夷에서 三〇里 떨어진 곳에 마치 外圃와 같이 한가할 때 가시었다>했다. 선생은 六二세에 漳州로부터 돌아와 建陽坊 同由橋에 살았는데 처음으로 築室하여 考亭이라 하고 五夫里에서 이사하여 竹林精舍에 거하였으며, 그후 九년만에 돌아 가시니 향년 七一세이다. 현 平康縣令 金景嚴이 空帖에다 七君子贊과 箴銘을 써주기 바라고, 또 朱先生이 棲息하며 講道하신 것과 雲谷에서의

詩文, 事跡 등을 써서 선생을 흠모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니 그 뜻이 매우 아름답다. 내가 이 요구에 응해서 써 놓았다. 더구나 선생께서만 년에 五夫里에서 考亭으로 이사하여 竹林精舍만이 마음에 있으시었다. 考亭 외에도 雲谷, 武夷, 就名山 등이 있어 모두 道를 깊이 생각하시던 곳이다. —충략— 그 땅의 원근과 때의 앞뒤가 모두 몰라서는 안될 일이므로, 여기에 다시 간략히 적어 처음과 끝을 위와 같이 하여, 보고 생각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케 하고자 한다. 嘉靖甲子(一五六四) 踏青日 眞城 李滉삼가 씀.』

一一八三年四월에 朱熹는 武夷精舍를 짓고 다음과 같은 <武夷精舍雜詠并記>를 쓴다. 『武夷山の 계류는 동으로 흘러 모두 아홉구비를 이루는데 그 중에 第五曲이 가장 깊숙하다. 북에서 남으로 뻗은 산줄기가 이곳에서 멈추면서 솟아올라 바위봉우리를 이루니 높이가 천척이다. 봉우리 윗 부분이 조금 평평하고 얼마간 흠이 덮여있어 적은 숲을 이루는데 매우 프르러 볼만하다. 네 귀는 약간 수그러지다가 치켜 올라가면서 잘리어 마치 方屋에 모자를 씌운듯하니(圖一) 舊經에 이른바 <大隱屏>이라는 것이다. 이 大隱屏의 兩麓은 매우 험하여 멀리 떨어져 있다. 다시 들 어와 서로 열썩아오니 둘러싸인 땅은 平廣하여 數畝이 되고, 이 분지 밖의 溪水는 山勢를 따라 서북에서 흘러와 네번 꺾이다가 처음으로 남쪽을 지나 다시 산을 감싼다. 동북에서 흐르는 물 역시 네번 꺾이다가 두 줄기 계류를 이루며, 양쪽 丹崖와 翠壁에는 숲이 무성하니 그 솟씨가 귀신의 조각 같아 이루어 형언 할수 없다. 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좌우를 돌아보면, 뜻밖에 놀라운 광경이 그치지 않다가 홀연히 平岡長阜와 푸른 냇물과 무성한 나무들을 만나며, 좁았다가는 다시 뚝리어 넓어지며, 뒤엎친 침녕물은 울창하게 뒤덮여 사람의 마음과 눈을 舒絜하면, 시도 曠然케 하니, 그 깊이가 더 없는 곳이 바로 精舍가 있는 데다. 바로 兩麓이 끌어 안고있는 한 가운데 서남을 향해 집을 지었으니 左室은 隱求齋라 하여 待棲息하는 곳이고, 右室은 止宿寮라 하니 친구와 손님을 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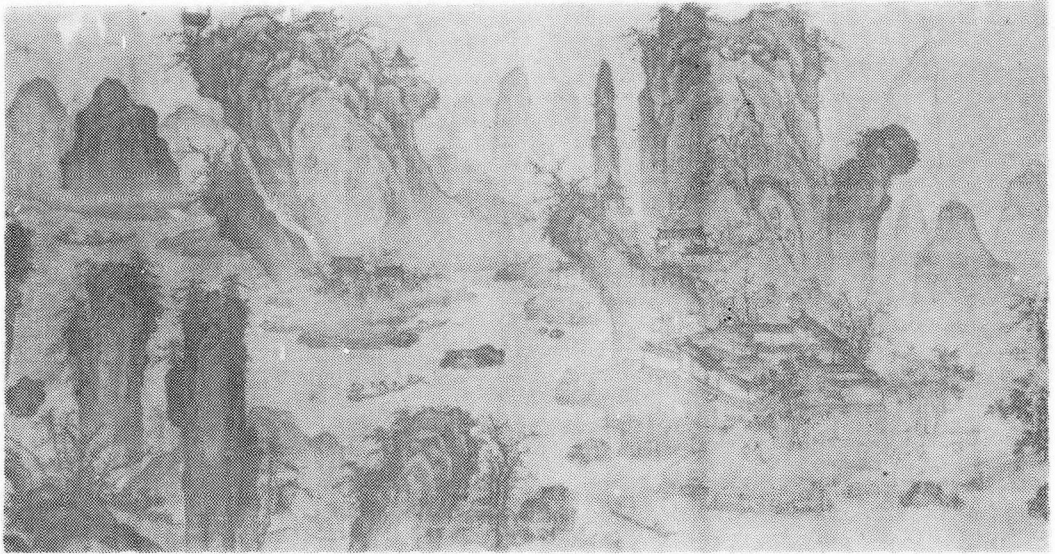


圖 1. 李成吉의 武夷九曲圖 第五曲

하는 곳이다。山脈 左麓이 밖에서 다시 다아와 右麓을 감싸고 있는 곳에 한 언덕이 있어 쌓여진 바위로 문을 이루었으니, 이름하여 〈石門塢〉라 하였다。그 안에는 또 집 한채가 있어 선비들을 묵게하여 배우며, 서로 관찰하고 깨달은바를 적게하여 그 뜻이 좋으므로 〈觀善齋〉라 하였다。石門의 서쪽 약간 南偏해서 또 집이 있어 道流들이 거하며 道書와 眞誥中 語⑥를 취급케하니 寒棲之館이라 하였다。觀善齋 바로 앞 산 아래에 정자를 짓고 大隱屏을 돌아 볼 수 있게하여 알맞게 했으니 杜子美의 詩語를 취하여 晚對亭이라 하였다。그 동쪽에는 背山臨水한 곳이 있는고로 또 정자를 지을 터로 삼고 胡公의 詩語를 따서 鐵笛亭⑦이라 하였다。寒棲樓 밖 울타리를 따라 떡갈나무를 심어 兩麓之口를 경계로 삼고 짜릿문으로 입구를 삼아 武夷精舍라 扁額했다。淳熙癸卯年(一一八三) 봄 정자짓기를 시작하여 四월一六일에 成堂하니 사방에서 士友들이 오기 시작하여 그 수가 매우 많았으며, 좋은 경치를 賞嗽하여 마지 않으나, 다른 집들을 갖추지 못하여 오래 머물수가 없었다。낙씨터와 차끓이는 부엌 등 모두 大隱屏 서쪽 여울가 바위 위에 있고, 계류 北岸에는 주방이 있다。溪流中에는 큰 바위가 있어 八, 九인이 넘겨히 앉을 수 있고, 사면이 모두 깊은 물에 맞닿았다。바위 한 가운데 웅덩이가 패여 자연히 화덕을 이루어 차끓일 수 있다。계수는 모두 九曲을 이루는데 좌우가 다 石壁들이라 발 딛고 올라설만한 길이 없는데, 다만 南山 아래 지름길이 있을 뿐이다。精舍가 溪北에 있으므로 모든 출입을 그리로 하지 않으면 안되며, 고기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다。종종히 노래 읊어 열두편의 변번치 못한 시를 지어 그 사실을 적으니 밝고 어두움의 모든 氣象의 변화와, 안개, 조목들의 이상한 모양들로 부터, 인간들의 나들이며, 鳥獸들의 울음 소리가 하루종일 끝이지 않는다。— 후략 —

이듬해 一一八四년에 朱子는 武夷權歌十首⑧를 짓는다。이 權歌는 序首를 제하고는 武夷九曲의 實景을 描寫하고 있는데, 退溪도 이 시를 두고 〈본래 경치를 서술하기 위하여 쓴 말이나, 그 가운데 비유를 섞고의미를 결드린 바가 없지도 않습니다〉⑨라고 한 것을 보면 자연묘사가 주

가 된다. 퇴계 말고도 조선조 性理學者들은 이 武夷權歌를 道學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단계적 方法으로도 해석하고 있다¹⁰⁾.

二、退溪以前 武夷九曲圖의 流行

武夷九曲圖 또는 武夷精舍와 같은 朱子와 관계되는 사항들이 언제부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고려말 元夫錫(一三三〇—?)이撰한〈耘谷詩史〉¹¹⁾에 李植의 七峯書院題詠詩 한 수가 있는데〈依然九曲武夷中〉이란 末句가 보인다.

朝鮮朝 前期 徐巨正(一四二〇—一四八八)에 오면〈宋文公武夷精舍圖用文公韻〉이란 五言絶句의 시가 있어 朱子의 武夷精舍雜詠과 같은 詩題를 쓰고 있다¹²⁾. 또 慵齋叢話에 의하면 安平大君 李瑢(一四一八—一四五三)은 漢陽北門 밖에 武夷精舍를 세우고, 南湖가에 淡淡亭을 꾸며 친하의 좋은 그림과 글씨를 모았다고 했으니, 이 즈음에 와서는 武夷精舍나 武夷九曲圖가 士大夫들 사이에 전파된 듯 하다. 즉, 고려말에서 조선조 초 어느 때쯤 夷九曲圖가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자가 아는 가장 오래된 년기를 갖인 것으로는 一五九二년작 李成吉(一五六二—)의 武夷九曲(圖2)이고, 이에서 조형상의 형식과 당시 무이구곡도의 양식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一五九二년작이므로 퇴계나 율곡 당대의 무이구곡도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전에 중국에서 건너온 초기 구곡도양식에 대하여는 그 대상묘사가 보다 더 사실성을 띠지 않았을까 추측 될 뿐이다. 하여튼 이 작품은 실제 武夷山의 사진과 대조해 보면(圖3) 상당히 많이 닮은 점이 있고, 安平大君, 徐四佳 등과 관계있는 安堅의 夢遊桃源圖系와 武夷九曲圖類와의 양식적인 관계도 생 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이외에도 자료의 소재가 분명치는 않으나, 開城에서 출토됐다는 吉州窯의 天目盞¹³⁾에다 고려말 金彩畵한 그릇에는 內面에 山水畵가 그려져 있고 그 둘레에 朱子의 武夷權歌第九曲詩가 써 있어 忠烈王때도 朱子畵만으로도가 아닌 그림이나 板刻畵같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三、退溪와 栗谷의 精舍經營과 九曲圖

一、退溪의 陶山書堂과 武夷九曲圖

퇴계 李滉(一五〇一—一五七〇)은 陶山雜詠記¹⁴⁾에서 陶山書堂이 一五六一年에 陶山 북쪽 退溪로부터 옮겨져 지어진 것을 말하면서 『堂舍는 세칸인데 중간 한칸은 〈玩樂齋〉라 하였으니, 그것은 朱先生의 名堂記에 玩賞하여 즐기니, 죽히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온 것이다. 동쪽 한칸은 〈岩樓軒〉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朱先生의 栗谷詩에 〈학문에 대한 自信을 오래 가지지 못하더니 바위에 깃들여 조그만 효험이라도 바란다〉라는 말을 파온 것이다. 그리고 합해서 〈陶山書堂〉이라고 현관을 달았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陶山에서의 卜居와 講學을 위한 精舍의 경영은 〈土禍로 어지러운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나아가서 벼슬하면서 경륜을 펴는데 기대를 가지지 않고, 학문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¹⁵⁾ 생각하는데서 온 것이지만 道學을 하는 方法, 즉 〈자연과 화합을 체험하면서 心性을 탐구하는〉¹⁶⁾ 朱子의 雲谷에서의 武夷精舍生活를 模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朱子를 근본으로 한 조선조 중기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는 특히 精舍, 書堂에서의 學究의인 生活를 晦庵이 말년에 보여준 것에 따라 행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 중에 하나가 흔히 제작되는 武夷權歌에 次韻하는 형식의 詩作이다. 퇴계에 있어서도 武夷九曲과 관계되는 詩로서 〈閑居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 〈武夷九曲〉, 〈鄭子中同泛濯纓潭用九曲詩韻〉 등이 있고, 〈與奇明彥書〉, 〈答全成甫別紙〉에서는 위에 언급한 것 같이, 시 본래의 자연묘사적 속성 외에도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¹⁷⁾. 다음으로, 武夷九曲圖에 대하여 퇴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퇴계는 〈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¹⁸⁾에서 『世間에 전해지는 무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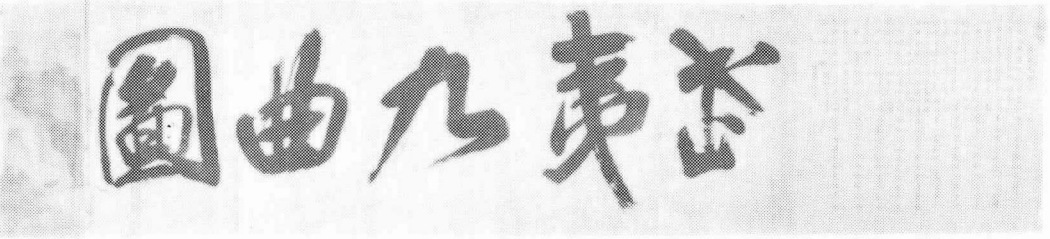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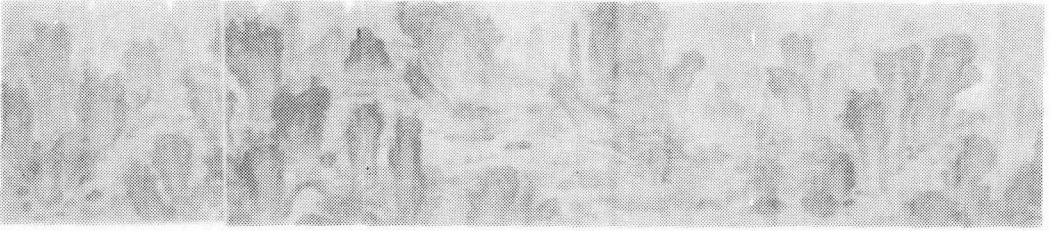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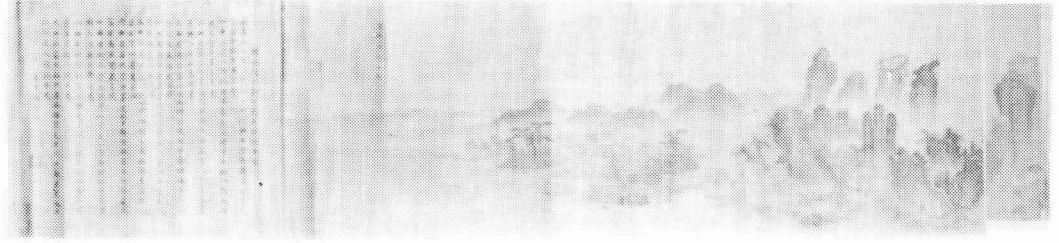


圖 2. 李成吉의 武夷九曲圖 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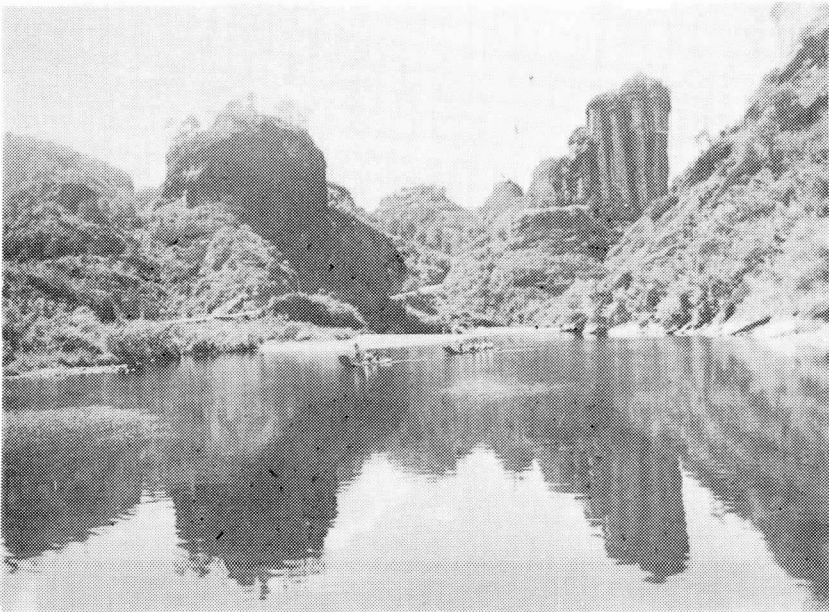


圖 3. 武夷山 實景

곡도가 많은데 내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몇본을 얻어 사람을 시켜 移摹했다. 그림이 워낙 疎略해서 전해질 가치가 없으므로, 벗 李仲久²⁰가 근래 한벌을 보내왔다.』라고 하였다. 李仲久(一五一〇—一五七五)는 자기 집에 전해온 무이구 곡도를 퇴계에게 보내어 每曲마다 주희의 무이도가 써 줄 것을 부탁했는데, 곧 그는 또 武夷圖 한벌을 그려 퇴계에게 보낸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은 甲子年(一五六四) 편지(答李仲久書)²¹에 나타난다. 『武夷圖는 정밀하게 잘 그려져서 玩賞할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 부타하신 題跋은 못쓰고 뒤로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편지에 『武夷圖는 부타하신대로 매곡에 權歌를 썼습니다. 그러나 跋語는 그림을 아주 더럽혀 놓아, 이 澁을 잘못 알고 하신 부탁을 거듭 어기는 것 같아 깊이 두렵습니다. 게다가 또, 微意를 부치노라시었습니다. 겸양해 회피할 줄 모르니 이 황이 심히 狂癡함이 우습구려, 또 한가지 두려운 점은 이 跋文으로 말미아마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난처함이 있게 된다면, 드디어 그 名區를 그린 좋은 그림이 상자 속에 파묻히게 되어 世人들이 보지 못하게 되고 말지나 않나 하는 것입니다. 崔子粹가 아된 말을 통해서 澁이 그림을 愛賞함을 알으시고 畫工을 고용하여 별도로 한벌을 더 摹寫하여 전해 주시려고 하시니 이는 천만 뜻밖에 다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요? 과연 그렇게만 된다면 그 후의를 어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후략—

결국 李仲久가 보내준 무이구곡도 한벌이 퇴계에게 돌아갔다. 乙丑年(一五八五)〈答李仲久書〉²²에 그는 다음과 같이 또 쓰고 있다. 『무이도는 마음먹고 摹本을 만들어 裝軸을 精絶이 하여 珍重이 부쳐 주시니 洞府의 烟霞와 大隱의 遺跡이 손 안에 서 들리다 보며 매양 한번 펼쳐 완상하노라면 깃가엔 마치 權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공의 至意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은 말씀하지 않더라도 의당 마음속으로 알으실 것입니다.』—후략—

이 李仲久가 소장하고 있던 武夷九曲圖는 퇴계의 門人 寒岡 鄭逵(一

五四三—一六二〇)²³에게 물려진다. 정구는 다음과 같이(書武夷志附退溪先生跋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後)²⁴라는 곳에서 말한다.

『내가 전에 구곡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퇴계선생의 題跋이 붙은 것으로 李仲久가 소장 했었으며 중국것을 모사한 것이다. 실로, 이른바(雲烟이 滿目하고 精妙曲盡하니 깃가에 權歌가 들리는 듯 황홀하다.) 라는 말이 맞다. 또 중국 책자 중에서 總圖²⁵와 書院圖를 얻었는데 그때 마침 花山²⁶에서 우연히 畫工을 만나 이를 模寫하여 武夷志안에 넣고 退溪先生의 발문을 있게했다. 한가한 틈에 한번씩 들여다볼 때 마다 이 몸이 朱子가 돌아가신지 사백년 후에 동편 땅에 태어났음을 깨닫지 못하고, 朱子를 모시고 날로 道를 강론 하는데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 듣고 노래하면서 어울리는 듯하였다. 그러하니 그 氣象과 意趣가 어찌하였겠는가! 이 같은 감회가 있어 이를 적는다.』

己酉暮春(一六〇九年)

鄭逵는 또 武夷志²⁷에서 『武夷山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워 천하에 제일이라 할만하다. 더구나 우리 朱夫子의 道學을 간직하는 곳으로 만대 사람들이 洙泗나 泰山²⁸처럼 우렐러 보게하니 진실로 우주간에 다 시 없는 땅이다. 이 몸이 뒤늦게 이 땅에 태어나 직접 朱선생의 가림침을 받지 못하고, 또 九曲溪流에 잦곤을 씻지 못하니²⁹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내가 전에 武夷圖가 있었는데 늘 매만지므로서 그 사모하는 뜻을 부치더니, 요즘에 또 武夷志 여섯권을 얻어, 열어보고 읊으니 이 몸이 隱屏과 鐵笛亭³⁰ 사이에 노닐며, 나머지 道德을 우렐러 받드니 아주 불행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베껴 산중에 간직하여, 책상머리에 두고 가끔 펴보나, 모두 얻은 것들이 寫本들이라서 誤字가 있으며 編首에 十一圖³¹子도 빠져있다. 그래, 장차 畫史를 구하여 原本을 얻어 模寫해 넣으면, 선생께서 손수 쓰신 글의 逼真함을 따르지는 못하겠으나, 많이 빠져 못보는 것 보다는 낫겠다.』—후략—

앞으로 성리학자들의 武夷九曲歌, 武夷九曲圖 등에 대한 관심을 더 살피게 되겠으나, 퇴계를 즈음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武夷九曲圖、書院圖、總圖 등이 있었다. 이것들은 朱子の 생활과 환경을 보다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성리학자들의 큰 관심거리였다. 학자들은 원수록 原本에 가까운 것을 얻기를 바랐으며, 그림과 記、詩 등이 동시에 실려있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 跋文、書가 더 부쳐지고 나중에는 후배나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것도 있었다.

二、栗谷의 石潭精舍와 高山九曲歌

가、石潭精舍

李珣(一五三六—一五八四)는 퇴계를 陶山에 처음 찾았을 때 지은 시에서 <溪分洙泗、峯秀武夷山> ②이라고 하여 그도 후에 石潭精舍를 짓고、高山九曲歌를 만들어 高山九曲圖가 그려지는 동기를 마련한다. 栗谷은 宣祖三年(一五六九)에 校理의 職을 辭하고 海州野頭村으로 오니 京鄕의 선비들이 따라와 배우는 자가 많았다. 이듬해 학자들과 高山石潭九曲을 찾아、各曲의 이름을 지어 表識하고 卜居할 뜻을 정하였다. 高山石潭은 海州의 首陽山支脈이 서쪽으로 뻗어나가 이루어진 仙適峯과 眞岩山 사이의 계곡이 깊숙하게 들어간 곳에 아홉구비를 이룬 것이다 ③. 栗谷은 그의 松岩記에서 『내 일찍부터 楓岩下流에 佳景處가 많다는 말은 들었지만 노니는 발길이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 辛未年四月(一五七〇) 늦은 여름의 旬日、친구、학생 六、七인과 시내를 따라 올라가니、수풀과 山峽이 물있는 곳을 따라 구비구비 돌아 나가면서、혹은 일어서고 혹은 엎드렸는데、높은 곳에는 만드시 푸른 언덕이 병풍처럼 서 있으며 그 아래는 물이 고여 못을 이루었다. 客중에 그 根源을 끝까지 찾아간 이가 있어 그 수가 아홉구비 있음을 아니、이른바 <九曲>이라는 것이다.』 ④라고 하였다. 宣祖 七年과 八년에 兪곡은 海州觀察使로 있었으며、九년에는 다시 石潭으로 와서 聽溪堂을 세우고、高山九曲歌를 짓는다. 趙계당은 그 후 顯宗元年과 英祖十二年에 重修를 거쳐 지금에 이르는

데、담장으로 둘러싸인 안에는 講堂 두 칸을 중심으로 念修齋、太極齋 등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처음 선조 一一年에 兪곡이 門人 松崖 朴汝龍、琴灘 趙光琮 등과 함께 지었던 隱屏精舍는 一五二年만인 임진왜란 때 불타는데、一六〇三年에 관찰사 鄭賜湖가 여러 선비들과 협력하여 다시 지었으며、兪곡이 돌아간지 三三만인 一五八五年에 그의 遺志에 따라 精舍위에 祠宇를 짓고 朱子와 趙靜庵、李退溪를 奉祀하며 뒤에 栗谷도 配享되었다. ⑤

나、高山九曲歌

兪곡의 고산구곡가는 주자의 武夷權歌에서와 같이 매수마다 實景을 묘사하며、더 나아가 <一曲은 어디메노> 하는 식으로 특정 장소로 유도시키는 初句를 두어 現場性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해 뜨고 지는 것、달이 빛이는 것、四季의 변화、形勢와 風光을 대개 一、三、五句에서 묘사한다. 兪곡은 우선 다른 성리학자와는 달리 주자의 九曲歌에 <次韻>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말로 韻을 삼는다. 이와 같은 취향은 그와 同年輩이며 歌辭文學의 頂點인 松江 鄭澈(一五三六—一五九三)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나게 한다. 다음에 朱子の 武夷九曲權歌、퇴계의 次九曲權歌韻 그리고 兪곡의 高山九曲歌、宋時烈的 高山九曲歌翻文을 비교하기 위하여 나란히 놓아본다.

武夷權歌

武夷山上有仙靈山下寒流曲曲清欲識箇中奇絕處權歌閒聽兩三聲
一曲溪邊上釣船幔亭峯影蘸晴州虹橋一斷無消息萬壑千巖鎖翠煙
二曲亭亭玉女峯插花臨水爲誰容道人不復荒臺夢興入前山翠幾重
三曲君看架壑船不知停權幾何年桑田海水今如許泡沫風燈敢自憐
四曲東西兩石巖巖花垂露碧甍參金雞叫罷無人見月滿空山水滿潭
五曲山高雲氣深長時煙雨暗平林林間有客無人識欸乃聲中萬古心
六曲蒼屏遶碧灣茅茨終日掩紫關客來倚權巖花落猿鳥不驚春意閒
七曲移船上碧灘隱屏仙掌夏回看却憐昨夜峯頭雨添得飛泉幾道寒

八曲風煙勢欲開 鼓樓巖下水縈洄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九曲將窮豁豁然 桑麻雨露見平川 漁郎覓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閑居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

不是仙山詫異靈 滄洲遊跡想餘清 故能感激前宵夢 一櫂賡歌九曲聲
我從一曲覓漁船 天柱依然瞰逝川 自眞儒吟賞後 同亭無復管風烟
二曲仙娥化碧峯 天妍絕世靚脩容 不應更覲傾城薦 闔闔雲濛一萬里
三曲懸崖挿巨船 空飛須此恠當年 濟川畢竟如何用 萬劫空煩兒護憐
四曲仙機靜夜巖 金雞唱曉羽毛移 此間更有風流在 披得羊裘釣月潭
當年五曲八山滾 大隱還須隱藪林 擬把瑤琴彈夜月 山前荷蕢肯知心
六曲回環碧玉灣 靈蹤何許但雲關 落花流水來滾處 始覺仙家日月閑
七曲撐篙又一灘 天壺奇勝最堪者 何當喚取流霞酌 醉挾飛仙鶴背寒
八曲雲屏護水開 飄然一棹任旋洄 樓巖可識天公意 鼓得遊人究竟來
九曲山開只曠然 人烟墟落俯長川 勸君莫道斯遊極 妙處猶須別一天

高山九曲歌

○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誅茅卜居하니 벗님네다 오시다어즈버武夷
를想像하고 學朱子를하리라

○一曲은어디메오 冠巖에히미친다 平蕪에니거드니 遠山이그림이라 松間에
綠樽을노코 벗오는양보노라

○二曲은어디메오 花巖에春晚커다 碧波에웃즐의워 野外로보노니 노라 사름이
勝地를모로니 알게흔들엇더하리라

○三曲은어디메오 翠屏에닐퍼져다 綠水에春鳥는下上其音흔는디 盤松이바
를을바드니여름景이엄세라

○四曲은어디메오 松崖에히넘는다 潭心巖影은온갓빗치잠겨세라 林泉이집
도록도흐니興을겨워하노라

○五曲은어디메오 隱屏이보기도희 水邊精舍는瀟灑흔도가이업다 中間에講
學도하더니와 詠月吟風하오리라

○六曲은어디메오 釣峽에물이넘다나와 고기와뉘야더욱즐기는黃昏에나디
를메고帶月歸를하노라

○七曲은어디메오 楓巖에秋色도타 清霜이넘게치니 絕壁이錦繡로다 寒巖
에흔스안스집을잇고잇노라

○八曲은어디메오 琴灘에달이밝다 玉軫金徽로數三曲을노리하니 古調를알
니업스니흔스즐겨하노라

○九曲은어디메오 文山에歲暮커다 奇巖怪石이눈속에묻쳐세라 遊人은오지
아니하고블것업다하더라

高山九曲歌本 諺錄 係宋時烈 觀文

高山九曲潭世人未曾知 誅茅來卜居 朋友皆會之 武夷仍想像 所願學朱子
一曲何處是冠巖 日色照平蕪 煙斂後 遠山眞如畫 松閒置綠樽 延行友人來
二曲何處是花巖 春景晚 碧波泛山花 野外流出去 勝地人不知 使人知如何
三曲何處是翠屏 葉已數 綠樹有山鳥 上下其音時 盤松受清風 頓無夏炎熱
四曲何處是松崖 日西沈 潭心巖役倒 色色皆蕪之 林泉深更好 幽興自難勝
五曲何處是隱屏 最好看 水邊精舍在 瀟灑意無極 箇中常講學 詠月且吟風
六曲何處是釣溪水 邊闊不知人 與魚其樂孰爲多 黃昏荷竹管 聊且帶月歸
七曲何處是楓巖 秋色鮮 清霜薄言打 絕壁眞錦繡 寒巖獨坐時 聊亦且志家
八曲何處是琴灘 月正明 玉軫與金徽 聊奏數三曲 古調無知者 何妨獨自樂
九曲何處是文山 歲暮時 奇巖與怪石 雪裏埋其形 遊人自不來 漫謂無佳景

다, 崔岾의 高山九曲潭記와 高山九曲圖

오늘날 우리나라에 流傳되는 高山九曲圖는 여러 점이 되는데, 아직 양
식적 특징이나 題, 跋, 記 등을 통한 일반적 인성적 규정은 못하고 있다.
다음의 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高山石潭九曲의 자연 묘사와 율곡
몰후 측근과 문인들의 九曲圖에 대한 관심을 살피기 위하여 율곡 생존
시 載寧郡守로 있을면서 가깝게 지내며 文章에 뛰어났던 簡易齋 崔岾
(一五三九—一六一二)의 <高山九曲潭記>를 들어 보자.

『나는 栗谷公과 少時부터 친구였다. 공은 이미 세상의 큰 선비가 되
어 조정에 크게 쓰여졌는데, 불행하게도 끝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지 二五년이 되었다.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은 무용지물인데 늙어서 도 죽지 않고, 공의 아들 景臨(芻)과 西京(평양)에서 맞았다. 세상 지낸 일들이 것저것 생각하니 말보다 눈물이 앞선다. 景臨生이 나에게 공의 故居海州九曲潭에 대하여 기록하여 달라고 한다. 나는 공이 그곳에 卜居한 처음부터, 이웃 고을의 地方官으로 있으면서 익숙하도록 왕복하였으며, 九曲潭이 夢寐中에도 잊혀지지 않던 터이다. 여기서 다시 생생한 기억을 더듬어서 차례로 이렇게 적어 본다.

第一曲은 〈冠岩〉이다. 해주성 西洞으로부터 거리는 四十五里인데…… 산위에 선 바위가 冠을 쓴것같이 우뚝하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또 〈처음 시작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것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山勢가 돌러 잡싸고, 시냇물이 합쳐하여, 급히 떠러지는 곳 아래에는 반드시 못이 있어서, 隱者의 지니는 곳이 될만한데, 山村의 두어 집이 보이기 시작한다. 제 二곡이 〈花岩〉이다. 冠岩에서부터 五리쯤인데, 바위썸, 돌틈에 모두 山石榴 같은 꽃이 포기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뒷 산촌에는 인가가 심여채나 된다. 제 三곡이 〈翠屏〉이다. 花岩에서부터 三, 四리 즈음에 바위가 더욱 기이한것이 많고, 푸른 비람이 둘러서기를 병풍같이 하였으므로 이름한 것이다. 병풍 앞 작은 들에서는 洞中 사람들이 농사짓는다. 들 가운데 盤松한 동우리가 있는데, 아래에 수십인이 앉을만 하며 翠屏 북쪽에는 신비 安氏가 살고 있다. 제 四곡이 〈松崖〉가 된다. 취병에서 삼사리 동안에 石壁이 천척은 되고, 그 위에 松林이 해를 가리웠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못 가운데에 돌이 반쯤 드러난 배 같은 것이 있는데, 〈船岩〉이라 이름하여 위에는 八九인이 앉을만 하다. 신비 朴氏가 마주 대하여 집짓고 사니, 대개 공을 따라 洞中에 들어간 것이다.

제 五곡은 〈隱屏〉이다. 松崖로부터 二, 三里 즈음에 石峯이 높고 둥글며, 明麗特異하여 못가와 물속이 모두 돌인데, 階石을 쌓고 물을 저장한 것 같다. 〈屏〉자의 뜻은 전에 말한 바이며, 〈隱〉자는 또 가까이 자신이 몰려나서 隱居할 뜻을 붙인 것이다. 공이 처음 石潭에 와서 집 짓고,

대강살 자리를 정하였는데, 따라와서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니 서로의 논하고 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략 갖추었다. 여기서 先賢을 높여 받들고 後生을 가르치는 일을 그 어느 것도 소홀히할 수 없으므로, 隱屏精舍가 있게 되었으며 부속 건물도 차례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의당 작은 記文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름어름하는 동안에 그만 손을 대지 못하고 말았다.

〈釣峽〉이라는 것은 은병에서 부터 三, 四리 정도에 시내에 걸친 바위가 많아, 그대로 고기 낚는 터가 되었으므로 이름한 것인데, 제 六곡이 된다. 〈楓岩〉은 조협에서 부터 二, 三리 즈음에 바위가 다 단풍숲으로 덮여있고, 서리가 온 후면 붉은 빛이 황홀하기 때문에 이름한 것인데, 제 七곡이 된다. 그 아래 두어 채 인가가 뽕나무와 柴荆으로 둘러 있어 은연중 한폭의 그림과 같다.

〈琴灘〉이란 것은 여울물 소리가 冷然히 거문고 소리 같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인데, 제 八곡이 된다. 〈文山〉이란 것은 옛 이름을 그대로 한 것인데, 여기가 제 九곡으로서 끝이 된다. 공이 생존했을 때에는 人物이 地靈이 되었던 것이니 〈文〉이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九〉라는 것은 龍德의 수이다. 내가 少時에, 공의 兒名(見龍)이 九二(92)를 응한 것임을 알았다. 그런데 작은 산의 옛 이름이 우연히도 道學에 부합하니 여기서, 조물주가 처음부터 그 사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朱子는 閩 땅의 武夷山에 거하였는데 九曲洞天을 소유하였으며, 공은 海州의 高山에 거하여 九曲岩川을 갖었다. 이것이 어찌 東南萬里間에 우리 道의 한가닥 氣脈이 자연 武夷山과 서로 관통한 것이 아니라. 저 임진병란 이후로 공의 집에서 화를 입은것은 실로 참혹 하였으며 山林水石도 또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국운에 관제되는 일이니 어찌하리오. 내가 공을 안것은 聞風興起한것이 아니지만 더구나 이미 九天에 간이가 다시 돌아와서 九曲清流에서 함께 술잔들며 시 읊을 수는 없는 일이다. 同學의 문자만을 가지고 공을 위하여 적는다면, 공의 영혼을 구곡 옛터에 불러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멀리 갈 수도 없는지라 景臨生을 시켜 돌아가 문위에 써서 결게 할 뿐이니 아아, 슬픈 일이다.』

이記에서 주목되는 것은 율곡이 돌아간지 二四년 후에 쓰여진 것, 石潭九曲의 자연을 아주 자세하게 描寫한 것이다. 원문에는 〈문위에 써서 결게 할 뿐이니〉라는 부분이 〈俾之景臨生歸書于簷楹之間〉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임생으로 하여금 돌아가 처마와 들보 사이에 써부치게 한다〉라고 해석되니, 懸板에 쓰여질 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후의 高山九曲圖를 보면 이 崔叟의 記가 실려있어, 곧 高山九曲圖 제작의 동기와 자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두 高山九曲圖의 體裁와 樣式을 알아보자. 그 첫째 例를 〈玄道源의 高山九曲圖〉라고 해 둔다. (圖4) 이 병풍은 원작으로는 아직 볼 기회가 없었고 사진만이 입수되어³⁹ 칫수, 落款 등 중요한 자료의 검토를 거치지 못하였으나, 檀園의 筆致 등에서 原本이 틀림없다. 이 병풍은 十二曲으로 되어 있고 作品의 상태가 좋다. 제 一 폭은 〈高山石潭記〉라는 題字가 위에 써있고, 아래에 〈栗谷先生 詠山中即景詩〉가 一八〇三年에 〈蕭淵〉이란 사람에게 의하여 〈一雲居士〉를 위하여 써졌다. 그리고 그 아래 다시 崔叟의 高山石潭記가 全文, 〈尹應大〉라는 사람에게 의하여 필사되었다. 다음 제 二 폭에서 제 一 폭까지는 上단에 세가지 詩, 즉 율곡의 高山九曲歌와 宋時烈的 漢譯詩가 따르고, 老論學者들⁴⁰의 武夷權歌에 次韻하는 七言絶句의 시가, 金祖淳 이하 九명⁴¹에 의하여 쓰여졌다. 하단에는 金履赫, 金弘道(一七四五—一八一五), 金得臣(一七五四—一八二二), 李寅文(一七四五—一八二二), 尹濟弘(一七六四—?) , 吳珣(?) , 李在魯(?) , 文慶集(一七六八—?) 등 화가들에 의해 각 폭마다 高山九曲의 경치가 그려졌다. 끝으로 제 一 폭에는 金昌翁의 詠石潭九曲詩와 跋이 위 아래로 松園居士⁴²라는 사람에게 의하여 쓰였으며 〈石潭圖詩跋〉이란 題字를 달고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記, 詩, 跋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어느때나 〈癸亥〉라는 年記가 있어 一八〇三年 임이 확실하다. 특히 〈文慶集〉이라는 畫家는 〈癸亥孟秋寫于松蘿軒中〉

이라 써서 一八〇三年에 松蘿軒이라는 곳에서 그려지고 또 孟秋니 仲秋上澣이니 하여 七월과 八월 상순에 걸쳐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高山九曲圖가 제작된 경위를 跋문에서 알아본다.

『이 高山九曲圖는 그 總圖의 記跋과 합하여 모두 열두폭이다. 그림 위에는 歌와 詩를 배껴 썼는데, 歌는 율곡선생의 지은바이며, 시는 송지연선생이 武夷權歌에 次韻한 것이다. 首章에서 아홉째 장까지는 당시의 諸賢들이 거기다 시 한수씩 지어 잇게한 것이다. 玄君⁴³이 돌아다니다. 이 그림 한벌을 얻었는데 너무나 아껴 좀처럼 풀어 보이기를 꺼리므로, 한벌을 摹出할 계획으로 성내로 갖이고 가니 동지와 여러 선비들이 받들고 보기를 그치지 않으며, 그림 그리는 이와 글씨 쓰는 사람들이 서로 돕기를 다투어 畫家는 그림 한폭씩을, 書家는 글씨 한폭씩을 쓰고, 또 歌詩까지 더 써넣으니 문득 새로운 帖이 되었다. 이 어찌 우연이 아닐까 보나. 아! 高山의 一區가 依然하니 이것이 武夷九曲이라. 더구나 栗翁의 노래와 尤翁의 시는 실은 朱夫子의 權歌를 근원으로 삼았으며, 또 그것으로 道를 알 수 있으니 이를 보는 君子들이 어찌 일어나는 감흥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書畫家들의 머릿이라고만 논할 수 없다. 玄君의 부지런함이 말로 다할 수 없구나!』

두번째 예는 〈南基奭의 高山九曲圖〉라 해둔다. (圖5) 이 南基奭本은 현재 두점이 있는데 하나는 홍익대 학교 박물관에, 그리고 또 하나는 全南康津邑 車珪煥씨 소장이다.⁴⁴ 이 두 병풍은 十폭으로 되어 있는데, 제 一 폭에서 九폭까지는 玄道源本과 같이 栗谷의 高山九曲歌, 尤庵의 漢譯高山九曲歌 그리고 金壽恒 이하 八명의 老論 士大夫들이 武夷權歌에 次韻한 시가 每曲上端에 나란히 쓰여있고, 그 아래 高山九曲의 그림이 크게 화면을 찾이한다. 제 一〇 폭에는 高산구곡가의 首聯과 尤庵의 漢譯詩, 그리고 諸公들의 次韻이 並列되어 쓰여있고, 그 아래 〈石潭八規〉, 그 아래에 〈正廟朝聖詠〉라 쓰고, 〈展也文成, 左海夫子, 武夷石潭, 千古二人〉라 되어 있다. 끝으로 下端에는 琴谷南基奭의 跋文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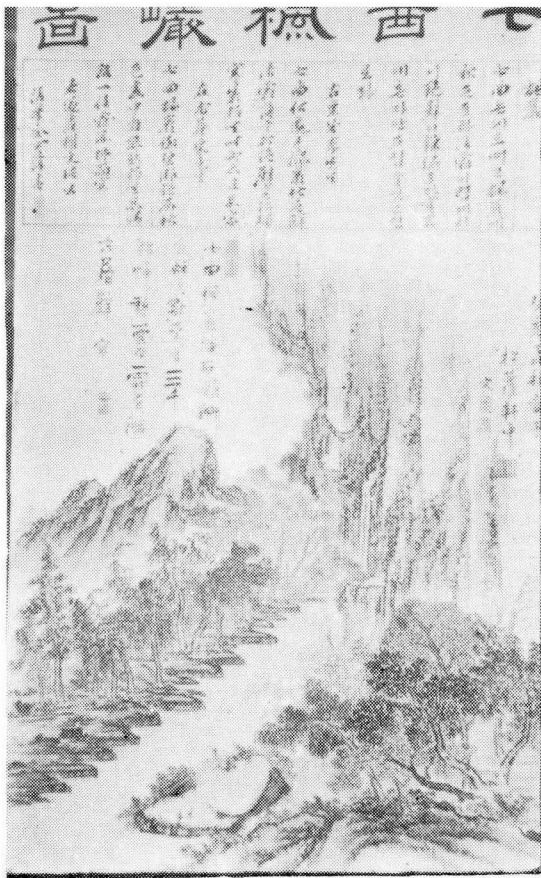


圖 4、玄道源의 高山九曲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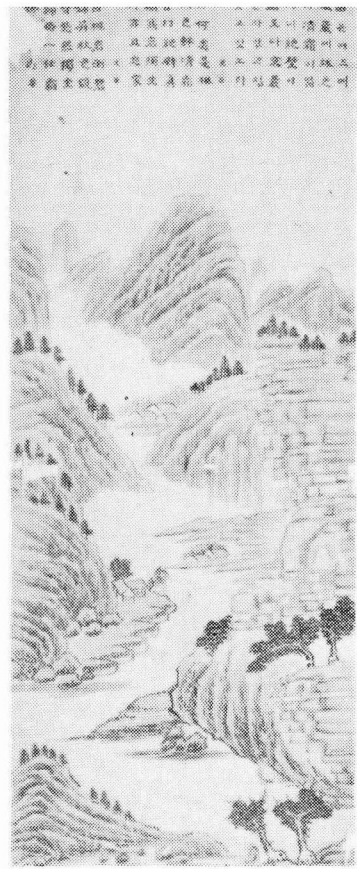


圖 5、南基爽의 高山九曲圖

〔正廟辛丑(一七八一)、命道臣、畫高山九曲、一本進御、一本藏置本家、以爲壽傳之寶、而模寫權輿於是、彊圉赤奮若、樞夏下漸〕 즉, 正祖의 명령에 따라 제작된 것, 한벌을 더 그려 本家에 둔 것, 그 후 三六년만에 南基爽이란 사람이 원본을 모사한 것에 발문을 쓴 것 등이다.
그림의 양식적 특색 등 몇 가지 문제들이 이 두 병풍에서 논의 되었지만 제5장으로 미루고자 한다.

IV、宋時烈과 金壽增의 精舍、九曲經營

一、宋時烈과 九曲圖

송시열(一六〇七—一六八九)은 가정에서 부친으로부터 〈朱子는 공자의 후계자이고 栗谷은 주자의 계승자이니, 주자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울곡의 擊蒙要訣을 배웠다. 45〉 그는 주자학의 巨儒이며 老論의 영수로서 一七세기 후반기 가장 심한 당쟁시기에 西人, 나중에 老論을 이끌어 가는데, 九曲圖와 인연이 깊다. 그는 一六六五년경부터 말년까지 오늘날 충청북도 槐山郡靑川面華陽洞에 드나들며 46 九曲을 두고 살았다. 華陽九曲은 華陽川 계곡의 약 4km에 걸쳐 다음과 같이 命名되고 있다(圖 6) 鏡天峽, 雲影潭, 金沙潭, 泣弓巖, 침성대, 공운대, 臥龍巖, 鶴巢臺, 葩川.

이 九曲의 명칭에 대하여는 모두 尤庵 자신이 命名한 것인지, 후대에 전해진 유적을 나열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송시열은 앞의 두 구곡도에서 본 것 처럼 栗谷의 高山九曲歌를 漢譯했으며, 高山九曲圖를 그리게 하고, 同志諸公에게 朱子の 權歌韻을 分配하여 次韻하게 했다. 47 여기저기 高山九曲圖製作에 대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증거를 갖게 되나 이미 그 이전에 고산구곡도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위에서 이미 崔岌의 石潭九曲記를 말하면서 고산구곡도 탄생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崔岌과 尤庵 사이는 약 二세대, 李景臨과 尤庵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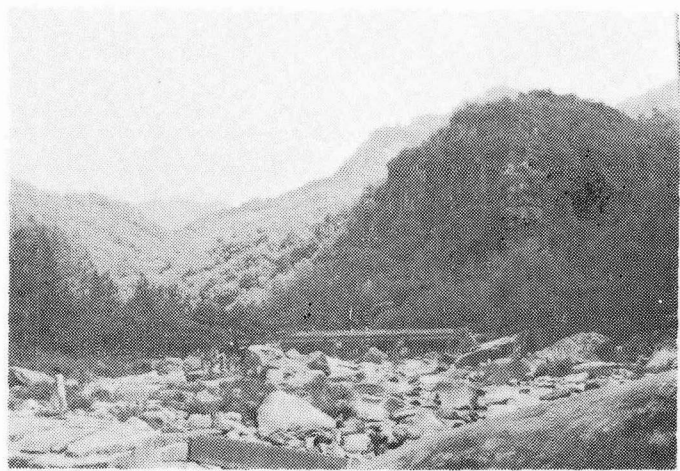


圖 6. 華陽九曲 第五曲沈寔대 實景

壽增과 특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二、金壽增과 谷雲九曲

가、谷雲九曲

金壽增(二六二四—一七〇一)은 淸陰 金尙憲(一五七〇—一六五二)의 長孫이다. 字는 延之이며 號는 谷雲으로 一六五〇년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一六五二년에 翊衛司洗馬로 지음 官직에 나아갔으며, 內職으로 工曹參判에 이르고 外職으로 平康縣監, 成川府使등을 지냈다. 一六七五年 成川에 在任할 때 동생 金壽恒(一六二九—一六八〇)과 宋時烈이 流配되매 辭職하고 現 江原道 華川郡 史內面 땅인 谷雲에 다시 들어가卜居할 뜻

는 약 一세대 차이가 나며, 또(明宗末年에 왕이 퇴계에게 여러 번 벼슬자리를 주어도 사양하고 이르지 않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陶山의 實景을 그려오게 하고 宋寅으로 기록지어 마치게 하였다.)⁴⁸ 했으니 栗谷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없었으리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하여튼 宋時烈은 華陽九曲經營事實, 高山九曲歌의 漢文翻譯 뿐만 아니라, 다음 절에서 논할 金

을 가지고 精舍를 짓는다. 그후 또 외직에 起拜 되었으나 一六八九년 己巳土禍로 金壽恒과 宋時烈이 被禍하니 이듬해 谷雲으로 돌아온다. 김수 증은 독서를 좋아하고 특히 만년에 朱子書를 탐독하였으며 篆隸에 조예가 깊어 많은 金石이 그에게서 나왔다. 또 漢代文章과 騷選의 韻格을 師法하였다. 그는 비록 簪纓世家에서 나서 仕官하였으나 雅性이 高尚하여 山水를 즐기고, 집안이 天倫의 禍를 당한 뒤로는 잠시도 서울에 머무르지 못하여 沈寔와 인연을 끊고, 深山을 찾아다니면서 朱子에 沈潛하였다.⁴⁹ 谷雲은 강원도 春城郡史北面北部와 華川郡史內面東部에 직경거리 약 一五km 사이에 위치한 深山溪谷으로, (圖7) 남쪽에 해발 一,四六八m의 華岳山과 서쪽에 九〇四m의 白雲山을 비롯하여 半經一〇km 이내의 계곡 남북에, 높이는 九二八m, 낮게는 四~五〇〇m의 산들이 서로 맞 끼어있다. 그 사이에 溪流가 있어 마치 평야에 발달하는 蛇行川 같이 굴곡이 심하며, 계곡마다 복잡한 地質構造로 된 岩石이 侵蝕露出되어 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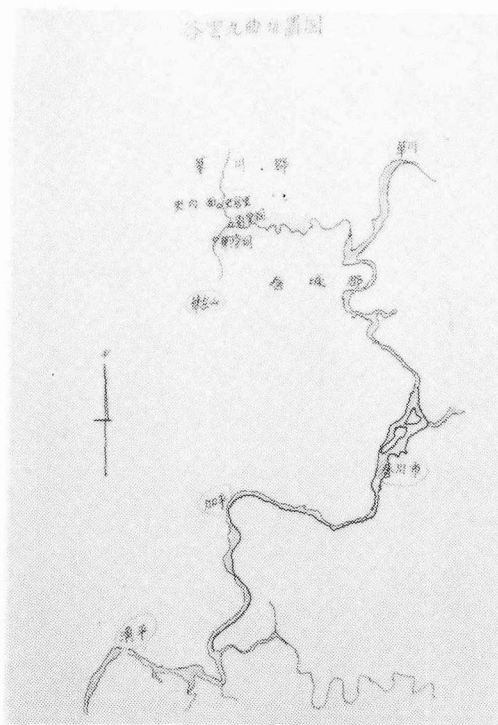


圖 7. 谷雲九曲 위치도

然의 잡목들과 함께 奇觀을 이루고 있다. 김수증은 谷雲을 발견하고 그곳에 卜居하게 된 內歷과 形勝을 《谷雲記》⁹⁰에서 말한다.

『谷雲은 華嶽北麓、春川府西北八十里에 있다. 輿地勝賢에는 《史吞》이라 했는데, 내가 이 鄉音을 개칭하여 《谷雲》이라 불렀다. 대개 平康땅分水嶺에서 백여리 달려온 산이 적이며 金化의 大聖山⁹¹이 되고, 또 이십여리 달려서 守里山의 한 줄기가 되는데, 남쪽으로 오르면 비틀거리며 가다가, 큰 계곡을 맞나 산을 이루며 멈춘다. 내가 그 산의 俗名이 아를 답지 못해 《靑嵐山》이라고 했다. — 중략 — 내 일찍이 平康縣에 公事로 가는 길에 鋤吾芝村을 지나게 됐는데, 谷雲에서 불과 삼십리라 했다. 들으니 곡운의 경치가 좋고 아직 探訪된 바 없다 한다. 庚戌年(一六七〇) 서울을 떠나 梧里谷을 지나서 蒜峴을 넘으니 산은 점차 높아지고 골짜기는 깊어져 인가의 연기가 끊어진다. 그곳에서 한 십리 더 가니 경치가 좋은 곳이 있어 속명이 《小樓插》이라 한다. 골짜기가 깊숙하고 깨끗하여 氣象이 깊고 고요하며 세계 흐르는 여울물이 층층바위를 따라 있고, 바람에 꽃들이 무수하다. 이에 이름을 고쳐 《傍花溪》라 하니 구명패인 돌들이 숲속에 널려 있고, 높고 낮은 곳에 바위가 있으며, 연이어 신선봉우리들은 하늘을 가리우고, 길이 다하다가 다시 뚫린다. — 중략 — 여기서 바람 하나를 돌아가면 고인 물이 맑고 깊숙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속칭 《龍淵》이라 한다. 하늘이 가물 때에는 마을사람들이 빌고 굿하는 곳이니, 이에 《臥龍潭》이라 불렀다. 靑嵐山의 中脈이 이곳에 이르러 蒼麓속에서 용처럼 꿈틀거리며 동북에서 내려와 서남을 바라보고 멈춘다. 이곳은 사방이 둘러싸여 동서 수백보, 남북 백여보가 될만하고 내가 서쪽에서 등으로 흘러 활모양을 이루며, 그 안쪽에는 平曠하고 조용하여 집 짓고 발갈만 하다. — 중략 — 대개 傍花溪에서 이곳까지 십여리 사이에 줄이은 산봉우리와 골짜기, 큰 나무와 어두운 숲, 흰 돌과 이끼 낀 바위들이 모두 이상한 광경이고, 여울물이 팔팔 쏟아지며 사람소리 드물어 쓸쓸하고, 철쭉꽃이 만발하여 사람의 마음과 눈을 황홀케 한다. 내 이곳을 最勝處로 정하여 《九曲》이라 하고 그 외에 노닐만 하고

가볼만한 곳은 이를 다 적지 못한다. 洞府의 넓고 평평한 땅은 매우 살찌고, 내에는 물놀이 할 수 있고, 세상을 피해 이리 저리 놀러 다니고 발을 갈 수 있으니 歸雲洞 一區가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이다. 이곳이 바로 六曲의 뒷쪽, 내가 합류하는 곳이다. 또 이곳의 동서에는 梅月公舊跡들이 불과 수리가 가까이 있고, 근방의 언덕과 산들은 하룻길에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수백년을 매물된 채 지내왔으니 감회가 깊다. 그 때 梅月公의 詩語를 취하여 小谷을 《探薇》⁹²라 하고, 이곳을 거쳐할 터로 삼았으니, 어찌 朱子가 《王君이 遺址을 얻었다》⁹³ 함과 같지 않으랴! 더구나 거처와 묘자리가 地勢를 얻어, 산이 막히고 길이 험하여 들어오는 外人이 드므니 주자가 이른바 《뜻이 아름답고 林泉의 勞苦를 꺼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 맞지 않겠는가! 내가 洞中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은 庚戌年 가을부터인데 몇해가 질려 七間茅舍를 끝냈다. 乙卯年 겨울에는 식구들을 모두 데려다가 살기 시작했다. 그 후 또 三間草堂을 짓고 扁額하여 《谷雲精舍》라 하고, 다시 籠水亭을 짓고 家廟를 세웠다. 좌우에 또 아이들 거처를 마련하고, 외양간과 부엌을 대강 만들었다. 辛酉年(一六八一)에 병으로 산을 나갔으나 人事의 변천이 己巳土禍를(一六八九) 불러, 다시 혼자 돌아와 華陰洞에 집을 고쳐 짓고 이를 기록한다.』

김수증은 谷雲에 집을 짓기 시작한지 一년만에(一六七一年), 서둘러 尤庵에게 《谷雲精舍記》⁹⁴를 쓰게 한다. 그는 우암과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각종 記를 주고 받으며 다른 門人들과 같이 武夷九曲權歌에 次韻하는 시를 짓는 것을 위에서 보았다. 一六七三年에는 海州 石潭書院을 찾아 栗谷을 崇仰하는 시를 남긴다.

나, 曹世傑의 谷雲九曲圖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谷雲九曲圖》라는 畫帖 두권이 소장되고 있는데(圖 8) 그 중에 原本을 谷雲 金壽增이 曹世傑⁹⁵이라는 士人畫家에게 谷雲九曲과 籠水亭을 포함한, 가로 六四, 세로 四、二五 cm 크기의 열



圖 8-1. 一曲 傍花溪



圖 8-3. 三曲 神女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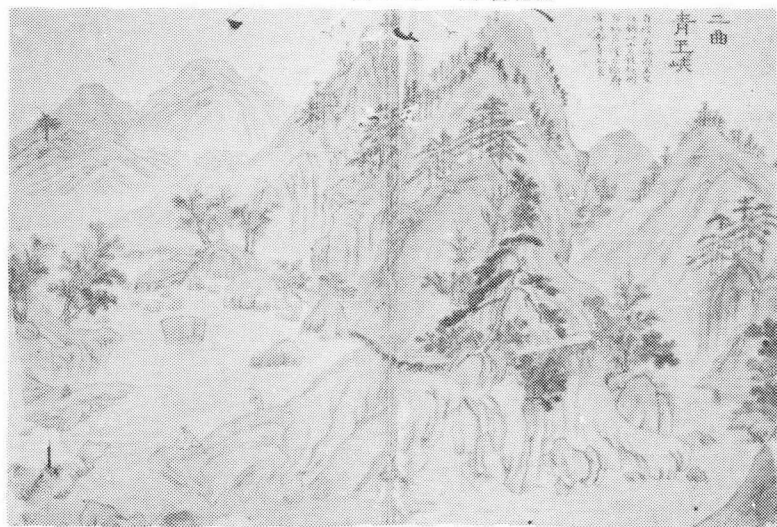


圖 8-2. 二曲 青玉峽



圖 8-4. 四曲 白雲潭



圖 8-5. 五曲 鳴玉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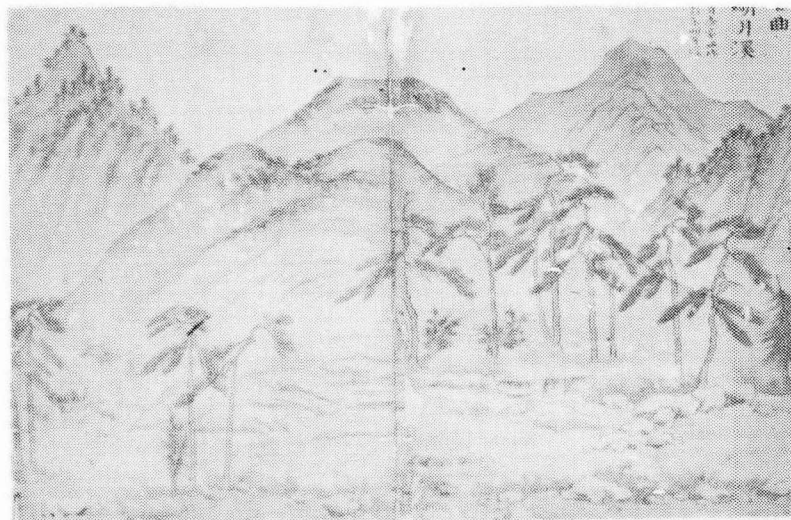


圖 8-7. 七曲 明月溪



圖 8-6. 六曲 臥龍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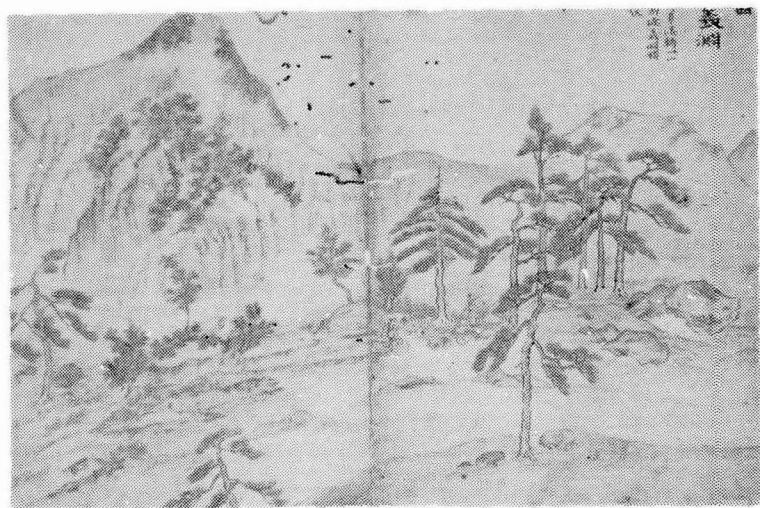


圖 8-8. 八曲 隆義洲



圖 8-9. 九曲 疊石臺



圖 8-10. 籠水亭



圖 9. 谷雲九曲圖 模寫本

폭 實景을 비단 위에 淡彩로 그리게 한, 跋文과 題畫詩가 따른 작품이다. 이 粧帖은 雲翁이(김수중) 壬戌年에 手筆한 《谷雲九曲之圖, 崇禎壬戌復月籠水亭主人書》라는 題字와 紀年에 의하여 一六八二년경에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조카 農巖 金昌協(一六五一—一七〇八)이 쓴 跋文에 의하면, 그림이 완성된지 一〇년 후에 谷雲 자신과 두 아들 昌國, 昌直 그리고 昌集을 비롯하여 다섯 조카들, 또 洪有人이란 外孫 까지 합한 아홉 사람이 齒序에 따라 武夷權歌에 次韻하여 谷雲의 每曲을 묘사하는 七言絶句의 시를 지어 畫帖을 만들었다. 이 谷雲九曲圖의 作者에 대하여는 跋문에 《畫者乃西都曹世傑先生實嘗手携面命逐曲臨寫如對鏡取影》이라 했으니, 谷雲노인이 畫師 조세걸을 계곡 현장에 끌고 가서, 每曲마다 실제 경치를 보고 寫生하도록 하되, 거울에 비친 物象을 취하듯 했다는 것이다. 또 그의 五代從孫 金近淳(一八二〇)의 後跋에 따르면 李源成이란 사람이 書院(春睦影堂)을 방문했다가 書樓에 있던 이 화첩이 손상된 것을 보고, 돌아와 당시 判書로 있던 金達淳에게 보였더니 達淳이 이 畫帖의 상태를 탄식하여, 즉시 工人에게 맡겨 改粧하게 하였다. 또 그때 韓別을 移摹하여(圖9) 本家에 두었다. 그 무렵 마침 金近淳은 華川縣令에 부임하게 되어, 改粧된 화첩을 谷雲에 있는 影堂에 가져갔다 한다. 이 일이 一八〇四년이었고 현재 原本畫帖 表紙에는 《丁巳改粧》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一八五七년에 改粧한 것이 金興根(一七九六—一八七〇)의 跋文(圖)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谷雲九曲圖의 實景性에 대하여 말해 보자. 앞에서 이미 언급된 《臨寫如對鏡取影》이란 표현이 전통적인 筆墨畫의 描寫可能性을 지나친 관습적 말이기 는 하나, 眞景을 그대로 옮기고 싶은 바램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제삼자의 글을 통하여 표현된 것으로, 김수중 자신의 의사가 꼭, 어퍼하였는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性理學者들의 전통적인 具體的描寫癖이 이 그림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曹世傑 자신의 對象描寫에서의 태도와 기법일 것인데, 이 谷雲九曲圖를 그의 다른 그림들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山水畫의 형식으로 보나

기법으로 보나 허다한 난점이 있다. 實景山水畫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는 例로 현장에서의 略寫, 畫室에서의 轉寫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검토분석이 따르지 못하였으므로 다만 여기 거론된 몇 점의 九曲圖를 중심으로 양식적 특색과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다.

V, 九曲圖의 造形上의 몇가지 문제

지금까지 필자는 九曲圖의 발생동기와 그 機能에 대하여 일차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세워보려고 애써왔다. 다음 과제로는 조형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위에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우선 九曲圖가 처음 우리나라에 건너 왔을 때의 형태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중국 자체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武夷九曲圖가 그려졌는지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양식적 특색 내지 화파, 또는 화가 개인의 개성에 의한 회화적 성격을 알 수 없다. 이제 다시 李成吉의 武夷九曲圖로 돌아가 말하자면, 조선조 중기까지도 안견의 화풍이 풍미하였으므로 이 작품에서도 直立한 岩山의 상단부 表面處理라든가 岩塊나 峽曲의 대각선운동 등 그 여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선 전기 산수화의 지배적인 양식적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표현상의 일차적 목적은 역시 武夷九曲의 사실적 묘사에 있음을 사전비교와, 朱子의 몇가지 記에 나타나는 산수, 精舍 건물 배치의 묘사 등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九曲圖의 형태상 體裁의 변화다. 즉, 초기에는 두루말이(橫卷)가 들어 왔고, 거기서 다시 帖으로 변형되고, 나중에 屏風(圖), 그러니까 위아래가 긴 幅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초기의 橫的構圖는 溪流를 따라 연속적으로 묘사되어야 하는 九曲圖의 형태상의 제약 때문이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李成吉의 武夷九曲圖가 그것이다. 帖의 例로서는 谷雲九曲圖가 되겠다. 帖形態의 가로가 세로로

다른 산수화는, 특히 詩書畫一體로 엮어지는 酬唱하는 모임에서 많이 애용되었으므로 文人的 취미의 체재라 할 수 있다. 帖은 보관해 두었다가 여럿이 퍼놓고 감상하면서 곁에 시를 써놓고 비교해 보는 맛이 있고, 또 帖畫 위에는 구도상의 큰 부담 없이 畫評이나 題를 써넣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좀더 발전한 것이 玄道源의 高山九曲圖같은 위아래로 너무 길지 않은 형태이다. 이 그림들은 폭이 너무 좁지 않아서 그림 안에 다 題詩와 落款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써넣었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九曲溪流 每曲의 景觀의 구성요소(畫材)를 거의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징을 강조한다. 또 근본적으로 구도를 지배하는 溪流는 橫卷처럼 좌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縱으로 골짜기를 형성하거나 畫面을 앞부분에서 대각선으로 분할한다. 좁은 幅을 갖은 병풍그림에서는 溪流가 화면상단에서 아래로 溪谷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다아오며, 또 안개가 산봉우리와 계곡을 확대분산시켜, 매우 산만한 구도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병풍 그림은 흔히 있는 四時八景圖를 달아가며 따라서 사실상 표현방법을 포기하고, 후기로 갈수록 거의 무순 산수화인지 모를 정도로 특징을 잃고만다. 南基奭의 高山九曲圖는 첫 작품이 一七八一年에 이루어졌으나 벌써 一八一七년에 와서는 摹寫過程에서, 이름없는 직업화가나, 文人畫家나에 따라서 크게 영향 받게지만, 民畫樣式에 가깝게, 기법이 패턴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玄道源本은 原本이 보다 사실적 實景을 나타내는 작품이였겠으나, 一八〇三에 있었던 金弘道등 이름있는 畫員들과 文人畫家들로 구성된 畫人들이 그렸으므로, 각 幅마다 개성있는 스타일을 보이면서도, 역시 이들의 비교적 자유스러운 작화의욕과 書卷氣 때문에 실경도의 성격을 잃어가고 몇가지 高山九曲의 특징들이 강조되고 있다.

VI, 結論

이 論題는 처음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傳金壽增筆 谷雲九曲圖帖을 확

인코저 출발 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武夷九曲圖로 더듬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다시 조선조 중기 이후, 우리 산천을 직접 그린 몇가지 실례로 내려와서 九曲圖 전반에 대한 기본적 문제인, 발생과정과 그 機能에 대하여 증점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은 특수한 회화부분은 조선조 性理學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므로서, 조형중심적인 분석방법 외에도 朱子學者들의 사고와 생활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했다. 그러나 회화사를 전공하는 필자로서는 이방면에 대한 능력의 한계성을 느끼고, 이를 다만 앞으로 보다 다각적인 회화사 再構成의 보탬이 되게 할 뿐이다. 이와 같은 새롭고도 기초적인 시도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금까지 전래된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또 一五九二年 작인 李成吉의 武夷九曲圖까지는 너무 큰 樣式分析問題上的 빈틈이 있었다. 하여튼 實景山水圖의 일분야 중에서도 그렇게 문제시 되지 못했던(九曲圖)라는 한 분야가 예상 보다는 많은 문제를 던져준 셈이다. 특히 현장 답사를 통하여 잃어져가고 있는 유적을 작품과 비교연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었다. 九曲圖의 특수한 성격으로서는 감상적, 장식적 대상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성리학자들의 朱子를 더 깊이 이해하는 보조수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되게와 그를 추종하는 학자에서는 武夷權歌의 해석에서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栗谷과 그를 따르는 학파에서는 우리 가사체와 닮은 高山九曲歌의 제작과 함께 우리 산천을 九曲圖라는 형식의 實景畫로 수용발전시키는 것을 분별 할 수 있다. 개괄적으로, 九曲圖는 性理學의 學統이든, 門人 또는 특정한 家門 관계이든 이들을 結束시키려는 求心的 대상이 되고, 그 移摹品들을 통하여 家譜로서 이어지며, 書院, 影堂, 御進品으로서 肖像畫와 비슷하게 崇賢尊師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移摹過程에서 나타나는 樣式上的 변이는 앞으로 일반山水畫양식의 추이와 비교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高山九曲圖의 제작발전에서는 宋時烈과 金壽增을 비롯한 몇 대의 老論學者들에 의하여 더욱 추진되었다.

이에 비하여 南人들 사이에서는 武夷九曲圖와 陶山書院圖가 姜世晃 등에 의하여 비교적 후기까지 이어 제작됐다. 玄道源의 高山九曲圖에서는 畫員들과 文人畫家들이 나란히 한작품을 완성하는데 참여한 예를 볼 수 있고, 金弘道, 金寅文 등 圖畫畧系 畫員들이 나오는 현상은 文人畫家優位論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어떤 자료가 될지 모르겠다. 文人畫家들에 있어서는 吳珣이하 七명의 지금 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끝으로 曹世傑筆 谷雲九曲圖의 實景描寫에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寫實的描筆法의 확인은, 아직 그의 다른 山水畫樣式의 규명이 따르지 못하여 이룰 수 없었다. 끝으로 현재의 여전 속에서 유일하게 작품과 현장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谷雲에서는 精舍遺址가 발견되어 이 분야의 새로운 자료가 된다. 한정된 기간에 읽매인이 논고의 내용이 미비하여 등학의 비판을 바라 마지 않는다.

(全南大學校)

註

- ① 朱子가 당시 武夷九曲圖를 제작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 ②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의 老論에의 참가는 新安東金氏家の 人的關係를 말하며 湖洛論爭과는 別個문제라고 생각된다.
- ③ 退溪先生文集卷四十三、
- ④ 中國江西省廬山五老峯 아래에 있던 書院으로 五代南唐때 처음 廬山國學을 세움, 北宋初에 다시 서원을 두었으나 南宋 이후 쇠퇴한 것을 朱子가 다시 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퇴계가 白雲洞書院을 재건하게 된 模範이 된다.
- ⑤ 宋나라사람, 號는 南澗翁, 建安令, 학교를 부흥시키고, 후에 夷部尙書, 龍圖閣學士가 되다.
- ⑥ 二十卷, 梁陶宏景撰의 神仙授受의 眞訣을 쓴 책
- ⑦ 武夷九曲의 第五曲
- ⑧ 朱子大全卷九, 淳熙甲辰中春精舍閒居戲作武夷權歌, 王昶, 退溪詩學(終), 「退溪學報」第二五輯, 一九八〇, P, 九七一—二〇二論朱詩 참고
- ⑨ 주 ⑧) 論朱詩 참고
- ⑩ 「星湖先生全集」卷五六, 書武夷九曲圖

- ⑪ 「高麗名賢集五」, 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研究院刊, P, 三四八
- ⑫ 徐四佳全集卷四, 詩
- 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一五九二년작, 絹本淡彩, 三三三, 六×四〇〇 cm
- ⑭ 久志卓眞, 「朝鮮の陶磁」, 再版, 東京一九七五, P, 二二三
- ⑮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퇴계집」, 三판, 一권, 서울一九七七, P P, 三四—四〇
- ⑯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서울一九七八, P, 一四二
- ⑰ 앞글, P, 一四三
- ⑱ 주 ⑧) 王昶, 論朱詩참고
- ⑲ 退溪先生文集 卷四十三、
- ⑳ 분명은湛, 호는 靜存, 퇴계보다 九세년하이며 많은 편지를 주고 받음.
- ㉑ 李東歡, 「答李仲久之書(二)」,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九輯, 一九七六, P P, 一一一—一二三
- ㉒ 앞글, 十四輯, P, 二〇一
- ㉓ 자는 道可, 清州人, 昌寧, 同福현감, 通川군수등, 文章은 朱子를 宗으로 삼다. 寒岡集
- ㉔ 寒岡先生文集 卷六、
- ㉕ 뒤에 나오는 《石潭圖詩跋》이란 곳에 《此高山九曲圖并其總圖記跋》이라 했으니, 그림 부분만을 《九曲圖》, 記, 跋, 詩등을 합하여 《總圖》라 하는 것 같다.
- ㉖ 安東? 鄭述는 한때 安東府使를 지냄
- ㉗ 武夷志 또는 武夷山志(省이나 縣의 通志외에 특정치역을 記述한 책으로) 朱子와 관계되는 史跡, 풍속, 詩記등이 쓰여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는 華本翻刻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古鮮冊本) 李滉은 答奇明彥書別紙(退溪文集卷十六)에서 《淸閑中嘗讀武夷志……》라 했고, 鄭述는 武夷志를 撰했다(書武夷志附退溪李先生跋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後)
- 참고 淸陳榮仁編, 閩中金石畧卷十二, 幔亭記同書畧攷證卷四, 武夷山翁詠
- ⑳ 山東省에 있는 江山으로 孔子의 위업이 르는 말
- ㉙ 세속을 초월함
- ㉚ 武夷九曲중의 명소 朱子の教化를 받는다는 뜻

81) 미상.

82) 퇴계의 학說이 중국의 孔子와 朱子를 계승하였음을 말한다. 李家源 退陶弟子列傳(六) 퇴계학보제집, 一九七五, P, 四五

83) 김용국, 黃海道誌, 서울 一九七〇, P, 九三

84) 앞글, P, 九五

85) 앞글, P, 九七

86) 海州邑誌 김용국, 황해도지, 一九七〇, P P, 九七一—一〇〇

87) 李景臨(二五七四—?) 자는 弘甫, 牛溪의 門人

88) 周易上經, 乾卦第二爻의 이름, 해석은, 見龍在田, 利見大人(聖耳이 점차 세상에 나타난다는 뜻으로, 栗谷의 兒名(見龍)이 이미 그가 후에 크게 될 것을 예견해서 지어진 것이며, 崔暉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말)

89) 東亞日報 李種奭부장님의 자료추신에 의함

90) 金壽恒(二六二九—一六八九), 宋奎濂(二六三〇—一七〇九), 鄭誥(二六四八—一七三六), 李畬(?), 金壽增(二六四一—一七〇二), 金昌翁(二六五三—一七二二), 權尙夏(二六四一—一七二二), 李喜朝(?—一七二四), 宋疇錫(?)

41) 金祖淳(二七六五—一八三三), 金明淳(一), 金義淳(二七五七—一八二二), 金達淳(二七七二—一八二〇), 金學淳(二七六七—一八四五), 金近淳(一八二〇), 金可淳(一), 金邁淳(二七七六—一八四〇), 金履秀(一)

42) 松園이란 호를 갖은 사람으로는 金履度가 있는데, 字는 季謹, 金濟謙의 孫으로 副提學, 禮曹判書를 지냈다(安東金氏文獻錄壬編卷之二)

43) 玄道源, 여기에 나오는 一雲居士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44) 絹本彩色, 一〇四×三四cm, 이 병풍은 畫面이 너무 깨끗하여 좀더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45) 成樂熏, 「宋子大全 해설」, 「한국사상대전집」二二, 서울 一九七七, P, 五二三

46) 이미 一六五一년 경에 革陽洞에 자리를 잡았음(一六五一년 宋時烈像題, 崇禎紀元後辛卯尤翁自警于革陽書屋, 그러나 答朴和叔書에는(지난 겨울에 과연 俗離山 북쪽으로 들어갔는데 곁하여 泉石의 勝景이 있어서 눈속에서 소

요하였소)라함

47) 〈尤齋嘗寫高山九曲圖, 屬同志諸公, 分次武夷權歌韻, 以紀之公諾而未就至是口占〉安東金氏文獻錄甲編卷之二十九, 一九七五, P, 二九三, 高山一曲次朱子武夷曲韻

48) 栗谷全書卷二八, 經筵日記 陶山實景은 鄭歎의 陶山書院圖, 溪上靜居圖와 姜世冕의 陶山書院圖등이 있다.

49) 金彰顯, 谷雲集解題, 谷雲集, 서울 一九七八, P, 一一一

50) 앞글, P P, 八四—八六, 〈谷雲〉이란 朱子가 福建省武夷山에서 그곳을(雲谷)이라 칭한것을 글자의 자리만을 바꾼것임. 朱子大全卷七十八, 雲谷記참조.

51) 현명칭 大成山,

52) 梅月堂集 卷六, 詩, 探薇曲참조

53) 朱子大全卷九二, 妣功郎致仕王君墓碣銘

54) 谷雲集(註49), 附錄二, 谷雲精舍記, 籠水亭記.

55) 一六三五년에나서 一七〇五년후까지 생존, 호는 涪州, 官은 僉使를 지내고, 山水, 人物畫에 능하라.

56) 春川春睡影堂(又稱臥龍祠肅宗甲申建)安東金氏獻錄癸編卷之二, P, 八三四

57) 原圖帖跋文참조

58) 병풍의 주요는 祠廟나 書院, 또는 製淮用으로 늘어났을 것이다.